



■ 경기도연합회

# 17대 총선 농정공약토론회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염동식)는 3월 4, 5일 화성 남양유스호스텔에서 약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시군읍면 회장단 교육”을 겸하여 “제 17대 총선 농정공약토론회”를 가졌다.

경기도연합회는 “17대 총선 농정공약토론회”를 각당 관계자를 비롯한 윤석원 중앙대 교수 등을 토론자로 초청하여 약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했는데, 그 중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 |                |   |
|----------------|---|
| 17대 총선 농정공약토론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장 - 황민영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li> <li>○발표자 - 정장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평택)<br/>최영호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br/>김필용 새천년민주당 경기도지부 농어업정책부위원장</li> <li>○패 널 - 윤석원 중앙대학교 교수<br/>염동식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회장<br/>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li> </ul> |
|----------------|---|

○ (한나라당) 최영호 수석전문위원

얼마 전 한·칠레FTA문제로 농업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이미 농산물개방은 상당부분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한나라당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정부의 119조 투융자계획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농촌 민간투자가 절실한 시점에서 농지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를 추진함으로써 농업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절대농지 아닌 농지는 농촌개발에 따른 이익에서 농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선 119조가 소득보전에 집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득보전특별법 등을 만들어서 정부가 발표한 금액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민주당) 김필용 부위원장

새천년민주당의 농업정책은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업의 구현과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고 활력 넘치는 농촌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어가부채특별법의 이행을 철저히 감시·감독하여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줄이고 농가부채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가부채의 상환능력을 재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직접지불제의 지급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쌀 수급과 소득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자연재해시 농작물 및 시설 피해에 따른 농가의 자부담을 줄이고 농작물재해

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저희 당에서는 2007년까지 농업예산 10%확보 공약을 완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복지정책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쟁력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기본방향은 소득보전, 복지강화, 체질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소득보전은 직불제 강화를 통해 농업예산의 20%까지 끌어올리고 복지강화부분은 교육, 보건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체질강화는 규모화와 경쟁력강화를 통해 개방을 전제로 한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 신경분리문제는 목표를 제시하여 추진하고 단위 농협도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경기도연합회 회장

먼저 각당에 공통요구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한 농업예산 10%확보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취농창업후계자라는 명칭으로 35세 미만으로 축소하는 식으로 후계인력을 육성하겠다는 농업을 죽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협동조합 개혁 법안을 약속했지만 입법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이 주인 되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파주시 교하농협처럼 우리 스스로 파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 ○ 윤석원 중앙대학교 교수

저는 공통질문으로 다섯 가지만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을 어떻게 보는지, 다원적기능을 인정한다면 그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업농촌에 대한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지. 세 번째, 식량안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네 번째, 공공비축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다섯 번째,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질문으로, 한나라당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시며, 열린우리당은 개방화시대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규모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0년, 20년 후에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

저도 다섯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9조 투융자계획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두 번째 10년뒤에 우리농업에 비전이 있다고 보는지. 세 번째 쌀 재협상에서 실제 관세화로 간다면 이에 대한 찬반 입장과 찬성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반대한다면 국회에서 비준거부를 할 수 있는지. 네 번째로 농업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만큼 공업과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일정비율 농업에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법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지. 다섯 번째, 119조의 운용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 ○ (민주당) 김필용 부위원장

먼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 DDA협

상, 쌀 재협상 등 농업협상에서 농민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농민의 의견과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종합계획과 119조 투융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의 특별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 문제는 철저한 감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관을 확충하고 전략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 ○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농업예산 10% 부분은 2007년까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농업의 다원적기능은 당연히 인정을 하며, 공공비축제 또한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공공비축제로 돌려서 이 돈을 전액 소득 보존에 써야 합니다. 농업의 경쟁력강화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생산비측면이고 하나는 품질의 경쟁력인데 저는 우리 농업이 아직은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관세화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FTA관련해서 수출품에 농업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119조는 소득보전과 경쟁력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한나라당) 최영호 수석전문위원

토지소유 규제와 이용의 완화문제는 농민들이 원하는 경우 농업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입니다. 119조는 직불제와 복지, 재해보험 지원, 농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부분에 많이 가야한다고 생각

하고 기반사업은 규모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계 인력육성부분에서 35세로 제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며, 농협개혁은 당연히 루어 저야 한다고 봅니다. 신용사업의 이익이 경제사업에 투입되는 제도적 틀만 만들어진다면 굳이 신용과 경제사업이 같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쌀관세화 문제는 이미 관세화는 진행 중이며, 이는 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FTA 이후에 공업부분에서 생기는 이득을 농업에 일정정도 투자하는 법제화는 이미 119조에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 염동식 회장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목표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저는 식량자급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 김필용 부위원장

저는 구체적인 식량자급률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나라당) 최영호 수석전문위원

구체적으로 식량자급율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윤석원 교수

지금처럼 해서 농업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는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을 내년에 당장 해야 하는지

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최영호 수석전문위원

저는 공공비축제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문제는 농민소득보전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민주당) 김필용 부위원장

저는 공공비축제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기본원칙은 공공비축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농업을 할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유통과 품질경쟁력 강화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박영범 대표

한나라당은 제1당으로서 당론으로 농업예산에 관한 부분을 당론화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경우에는 자료는 상당히 성의 있게 준비하셨는데 이 공약을 다 실행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특세와 같은 새로운 목적세를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열린우리당은 RPC 등 산지유통 시설에 대한 현재 여당으로서 지원책들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최영호 전문위원

지난 FTA대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많이 이끌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 김필용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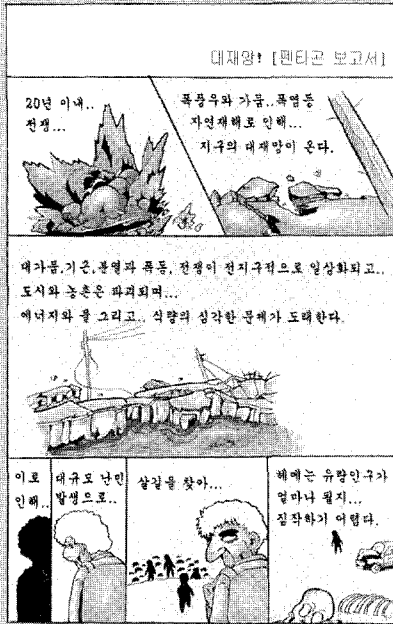
목적제 부분은 다른 당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쌀개방에 따른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농협 RPC에 대한 근본 대책을 농림부에 요구중이며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농선 **만평**

김 휘 승



○ 염동식 회장

많은 농민들이 구속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농민단체에 몇 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각 당에서 농민단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비축제가 당연히 가야할 부분이지만, 내년에 당장 시행될 경우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각 당에서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당 농정공약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식**

